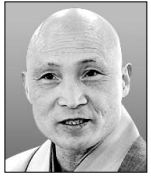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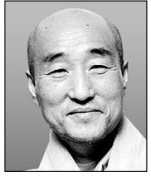
일주문



재소자 떡국공양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월 2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정월대보름 맞이 템플스테이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범어사 설법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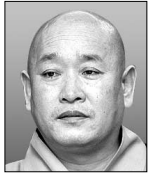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취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연 스님은 2월 23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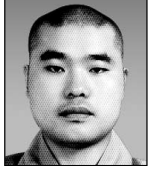
미국 송출기념법회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 스님은 2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광덕 스님 7주기 추모법회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2월 9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광회를 창립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발족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2월 23일 오후 1시 30분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포불교대학 졸업식
김포불교대학 학장 월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2월 11일 김포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김포불교대학 졸업식을...



불교평화현대 공동대표
전대종 사회부장 무연 스님은 2월 7일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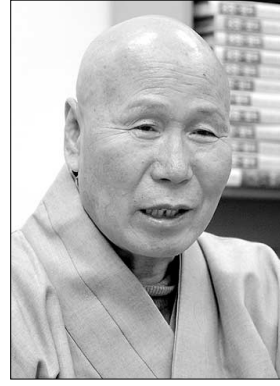
에비역 장성 모임 '성불회' 회장에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은 2월 9일 서울 충정사에서 열린 에비역 장성 불자모임 성불회(星佛會) 임시총회에서...



정년퇴임 기념 작품집 봉정식
前 불교여성개발원장 이인자 교수는 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년퇴임 기념 작품집 봉정식을...

“러시아에 한민족 자부심·불법 전할 터”

하바로프스키에 한인방송 개국 준비 도수 스님
1970년 ‘갯바위 부처님’ 소유권 조계종 환수 장본인



“러시아 한인 등포들에게도 한국어 방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법을 홍보할 수 있는 도량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에서 개국하는 한인 방송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수 스님(서울 흥제동 백룡암·사진)은 “러시아 한인방송국 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러시아 한인방송국은 현재 2005년 5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2005년 12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지역 2개 채널에 송출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26일부터 MBC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받아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올 5월 1일 본방송이 시작되면 KBS, MBC 프로그램은 물론 자체 편성 뉴스 등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도수 스님이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한인방송지원단이, 러시아에서는 (사)고려문화유산에서 주도적으로 개국 준비를 하고 있다.

도수 스님은 “불교계 언론 기관들과 연계해 방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찰을 건립해 불교 포교에 전념하고 싶은 것이 원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수 스님은 1965년 대구 팔공산 선분사 주지 시절 ‘갯바위 부처’로 유명한 관불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의 소유권을 조계종으로 반환 받은 장본인으로 유

명하다. 갯바위 부처님은 달성군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1965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국가 소유로 바뀌었다. 그러나 도수 스님은 1968년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 역사적 기록과 현재 갯바위 부처님이 선분사 소유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1970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수덕사 승가대학장에 응각 스님

예산 수덕사 승가대학장에 前 불국사 승가대학 강주 응각 스님(사진)이 1월 28일자로 임명됐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응각 스님은 1971년 백양사에서 서용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법주

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응각 스님은 80년 3월 훈기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었으며 1999년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1998년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2001년 동화사 교무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2002년부터 불국사 승가대학 강주 소임을 맡아왔다. 김두식 기자

“만다라 의상디자인에 접목”

신진디자이너 공모전 수상 받은 강현정 씨

“만다라의 색채와 도상을 보면 아주 귀한 참고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다라를 통해 제 작업의 외연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주관하는 제2회 신진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국내 무대 활동을 시작한 불자 디자이너 강현정(29·사진)씨. 그녀의 관심은 만다라와 고려불화 그리고 <화엄경>과 <금강경> 등 경전의 세계다. 어려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란 강씨는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할 기회는 없었지만 늘 불화와 불서를 가까이 했다”며 “의상 디자인이란 분야에서 불교를 접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만 지금 불교보다 소중함 참고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수도 여고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의 ‘상브르 산디팔(의상조합)’에서 공부한 뒤 파리에서 활동해 온 강씨는 2003년 세계적인 보석디자이너 회사인 스와로브스키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강씨는 불교정신을 생활의상에 접목시키는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동국대 대학원서 특강

이어령 박사 ‘디지로그’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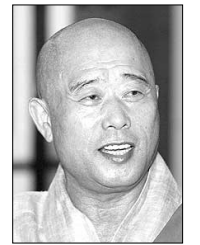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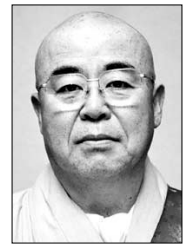
이어령 박사(문학평론가·사진)가 2월 22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디지로그시대 앞서는 한국인’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번 특강은 동국대 대학원(학장 서윤길)이 개최하는 2006학년도 제1학기 명사초청특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의 학습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



남동우 기자

구해 스님 기능보유자 지정후 첫 강의 옥천범음대 학장 일운 스님 1학년 직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구해 스님이 보유자 지정 후 처음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옥천범음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구해 스님

일운 스님

학장 일운 스님(전수교육조교)은 이례적으로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를 전격적으로 맡아 수업에 나선다.

영산재 기능 전수를 위해 영산재보존회가 직접 운영하는 옥천범음대학이 새 단장을 마치고 2006년 전기신(편)입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상주권공과(1학년) 50명, 각배과(2학년) 50명, 영산과(3학년) 50명, 불교무용·작품 50명, 불교의식 음악·무용 이론 약간명 등이다. 2월 1일~3월 5일 접수를 받아 3월 6일 개강할 예정이다.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한다. 성적 우수자 장학금, 국내의 공연시 우선 선발 자격도 부여한다. (02)392-3234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해안 스님 일획일각 불교서각전



해안 스님 ‘일획일각’ 전시회가 2월 9일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관장 보경)에서 개막됐다. 1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경판, 불교문양, 관세음보살 등이 새겨진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주한 노르웨이·칠레·필리핀 대사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 28기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은 2월 4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학과 제28기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동산불교대학은 또 3월 7~9일에 불교장재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한문학과를 차례로 개강할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 불자를 위해 2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연꽃마을 무의탁 노인 떡만두국 공양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1월 31일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경로식당에서 서울시 마포구 거주 65세 이상 무의탁 결식 어르신 262명을 대상으로 떡만두국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이번 대중공양은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심리적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연꽃마을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의 신간 한국인의 풍수지리 “풍수양택통론”
풍수를 바로 알자. 풍수는 미신이 아니고 신비의 과학이다. 신지식 혁신 풍수를 개척한다.
전통풍수를 현대적으로 접근코자 하였다.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이 빚어내는 풍수를 지구과학과 더불어 풀어낸다. 풍수도형을 개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도형법칙을 세웠다.
조경풍수에서 소재를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시켜 응용토록 하였으며 분금도형 적용과 조경의 법칙을 제시했다.
건강풍수에서 인성풍수를 개발하고 건강수행법을 창안하였으며 개운방법도 일러준다.
양택의 구조론에서 적정공간을 수직화하고 공간과 벽 문을 다양하게 논하였으며, 분금비를 적용하였다.
풍수분금도형을 개발하여 풍수의 근본 이치를 쉽게 일깨우도록 했으며 또한 분금비가 갖는 이치를 지구와 더불어 설명한다. 분금도형 법칙을 양택의 구조론과 조경에 적용하고 인사의 응용에까지 폭을 넓혀간다.
전국 서점 판매중
출품 申坪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80쪽 / 정가 26,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일명 판저 / 신국판 / 양장본 / 480쪽 / 정가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여기서 이르기까지 영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운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응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출강 동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2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3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4 사찰·포교원 등서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 학습도량
원서 교부 및 접수: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가능)
입학문의하시면 모집요강을 우송해 드립니다.
한국불교 법사 총 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